

국가 안녕, 호국, 남북통일 기원

# 제25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화엄의 바다에 다 모이십시오”

법왕사에서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제25회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 합장



● 36일차  
10월 6일  
이동법회  
송담스님  
인천 용화사



● 37일차  
10월 7일  
특별 법문  
용학스님  
범어사 승가대학장



● 58일차  
10월 28일  
특별 법문  
각성스님  
부산 화엄사 주지



● 100일차  
12월 9일  
불명수지  
보살계 수계 법회  
혜능스님  
전 해인사 율원장

◆ 일시 : 2013년 9월 1일 ~ 12월 9일 (100일간) 법문시간 매일 오전 11시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

※ 백고좌법회 기간 중 영가천도 49재에 올릴 영가 접수를 받습니다.

※ 법회 전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 BTN-TV - 10시 30분, 14시, 18시, 22시

- 자막 9시 36분, 11시 36분, 13시 30분, 13시 30분, 19시 45분

백고좌법회  
방송광고 시간표

※ BBS라디오 - 08시 52분, 10시 53분, 16시 48분, 22시 3분

법사명단

회차	날짜	법사스님	약력	회차	날짜	법사스님	약력
31일차	10월 1일 ㉔	정원스님	경기도 봉선사 능엄승가대학원	41일차	10월 11일 ㉔	철운스님	법주사 강주
32일차	10월 2일 ㉔	혜경스님	경기도 화당정사조실	42일차	10월 12일 ㉔	현정스님	대구 대원사 주지
33일차	10월 3일 ㉔	종연스님	인천 수미정사 주지	43일차	10월 13일 ㉔	지오스님	부산 범어사 교수사
34일차	10월 4일 ㉔	반산스님	경남 양산 원각사 주지	44일차	10월 14일 ㉔	정법스님	부산 진흥사
35일차	10월 5일 ㉔	덕정스님	서울 참수행 정각사	45일차	10월 15일 ㉔	혜해스님	경산 반룡사 주지
36일차	10월 6일 ㉔	이동법회 송담스님 인천 용화선원 원장		46일차	10월 16일 ㉔	법안스님	안심정사
37일차	10월 7일 ㉔	용학스님	부산 범어사 승가대학장	47일차	10월 17일 ㉔	마성스님	팔리문헌연구소장
38일차	10월 8일 ㉔	경성스님	해인사 회랑대(山內 암자)	48일차	10월 18일 ㉔	지운스님	경북 성주 자비선사 화주
39일차	10월 9일 ㉔	효범스님	해인사 학감	49일차	10월 19일 ㉔	본원스님	대구 수덕사 주지
40일차	10월 10일 ㉔	지장스님	서울 초의차 명상선원장	50일차	10월 20일 ㉔		이동법회(대원사 송광사)

법왕사 제2해오름요양원 및 병원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3. 10 | Vol. 233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 제25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입재

법왕사에서는 오는 10월 21일 제25회 백고좌법회 49재를 입재합니다. 이날 입재한 49재는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올리며 회향일인 12월 9일 회향합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도 봉행합니다.

법회기간 동안 조상영가 천도재를 올림으로써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49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기 도 입재 10월 21일(음. 9월 17일)  
초재 10월 28일(음. 9월 24일)  
이재 11월 4일(음. 10월 2일)  
삼재 11월 11일(음. 10월 9일)  
사재 11월 18일(음. 10월 16일)  
오재 11월 25일(음. 10월 23일)  
육재 12월 2일(음. 10월 30일)  
막재 12월 9일(음. 11월 7일)

준비물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겂옷, 신발(짚신) - 사중에 준비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공양미 - 3되3홉 또는 15,000원  
수자령 - 분유, 배냇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문의 법왕사 766-3747, 9088

※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을 공양하실 분은 종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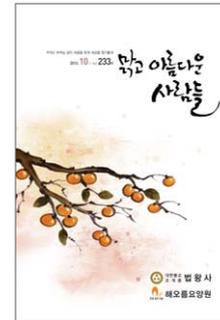


## C.o.n.t.e.n.t.s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3  
10

Vol. 233호



- 04 깨침의 향기  
최고의 보살행은 지극한 효도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8 비슬산방  
보살이 염원하는 세상은  
고통 없는 불국토 · 실상 주지스님
- 10 법왕논단 | 종교와 철학  
태극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 · 본원스님
- 14 불교상징의 세계  
조성 재료에 따른 한국의 탑 · 조명래
- 20 명찰순례  
아름다운 석조문화의 진수 지리산 구례 연곡사
- 24 선시감상 | 효봉선사  
효봉선사 오도송(悟道頌)
- 26 법왕사소식
- 28 법왕사게시판
- 31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 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 수성 라 00017 |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 불기 2557(서기 2013)년 10월 01일 발행 | 통권 233호 | 종무소 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 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 강영도 |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 편집위원 모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유, 강선옥, 고재일 | 기획·제작·디자인 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 최고의 보살행은 지극한 효도

원공당 정무 대종사



부모님의 어진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녀의 역할이고  
불자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보살행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평상심이  
아닌 것은 자녀가  
부모님을 잘못 모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식 걱정에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불효를 저지르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면전에서 통곡하는 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효도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온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원만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효도도 가능합니다.

그럼 진정한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 부모님은 큰방에 모셔야 됩니다. 공경(恭敬)하는 마음이 없는 보살핌은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많은 돈을 들여 잘 먹고 잘 입게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공경의 마음이 있다면 큰방은 당연히 부모님 차지가 됩니다.

부모님이 큰방에 계시면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서 함께 놀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이 방문하더라도 따뜻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용돈은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즉 이것은 담뱃값이고 이 돈은 이발하는데 쓰시라 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 어떻게 쓰든지 상관 없이 그냥 드려야 합니다. 더구나 직접 드리는 것보다는 손자 손녀에게 대신 전해드리라고 하면 교육의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는, 가능하면 직접 간호해야 됩니다. 요즈음 병원마다 만원입니다. 바쁜 의사는 잘 고쳐도 3년을 못 살 사람과 잘 고치면 20년 살 사람 중에 아마 20년 살 사람을 먼저 치료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병자들은 몸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해집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희망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병간호는 자식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정신이 온전치 못해 불인(不人)한 행동을 하더라도 절대 거역하면 안됩니다. 그냥 간절하게 지극하게 마음이 돌아올 수 있게끔 돌봐드려야 합니다.

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그어진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녀의 역할이고 불자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보살행(菩薩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평상심이 아닌 것은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자녀가 부모님을 잘못 모셔서 그렇게 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사십구재를 드립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살아계셨을 때, 생전예수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하시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가십니다. 이 지상에 사는 인류 중에는 무덤이 없는 종족도 많고 제사를 안 지내는 인종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제삿날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음식을 새로 장만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녀교육의 효과가 엄청납니다. 두 번째는 씨족끼리 단합하고 화합하는 매개체가 되고 세 번째는 자기의 뿌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 나쁜 짓을 안 합니다. 네 번째는 고향을 떠날 때 했던 입지(立志)를 조상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제사는 유교와 불교 등 종교와 관계없이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믿고 실천해온 신앙입니다. 일본 등이 제사를 없애려고 해도 절대 안 없어진, 우리의 삶에 굳건하게 뿌리 박혀 있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가치 있는 것은 아무리 탄압해도 살아남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무리 장려해도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유구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한 제사는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할 미풍양속입니다.

문제는 과도한 상차림입니다. 가정의례준칙



가치 있는 것은 아무리 탄압해도 살아남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무리 장려해도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제사는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할 미풍양속입니다.

으로 장례식 등은 많이 간소해졌는데 유독 제사 음식만큼은 아직도 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옛날에는 제삿날만이라도 음식을 서로 나눠먹기 위해 음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육법공양이면 됩니다. 육법공양은 부처님께 올리는 쌀과 향, 꽃, 과일, 차, 그리고 촛불 등 여섯 가지 공양물을 말합니다. 이는 육바라밀을 행하겠다는 의지이며 진리를 받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香)은 해탈을 의미합니다. 향은 자기를 태워 주위를 밝게 하고 얽힌 것을 풀게 합니다. 그래서 향을 공양하는 것은 부처님 도량을 향기롭게 하는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초는 지혜(知慧)와 광명(光明)을 상징합니다. 지혜가 없는 인생은 어둠에 사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바르게 보며 참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꽃은 보살도를 상징합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온갖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합니다. 이처럼 중생들도 보살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일은 보리과의 깨달음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은 깨달음이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차(茶)는 감로(甘露)를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감로의 법문이다. 감로의 법문은 우리에게 만족과 청량함을 줍니다. 쌀은 선정(禪定)이자 보시바라밀입니다. 쌀은 농부에게는 기쁘고 육신을 가진 이에게 꼭 필요한 자양분입니다.

백살 먹은 어머니가 팔십 먹은 아들 걱정 때문에 곱게 죽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보살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보살의 마음을 굳게 지니고 효도합시다.

# 보살이 염원하는 세상은 고통 없는 불국토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모든 불국토를 두루 맑게 하려고  
모든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하려고, 모든 부처님 법을  
두루 알려고, 큰 서원을 세우고  
선근을 닦아 위없는 보리에  
회향하는 것이다

보살이란 무엇인가요?

보살마하살은 보시(布施) 바라밀을 행하고 지계(持戒) 바라밀을 지키며 인욕(忍慾) 바라밀을 실천하며 정진(精進) 바라밀을 일으키고 선정(禪定) 바라밀에 들어가고 반야(般若) 바라밀에 머물러 대자대비(大慈大悲)·대희대사(大喜大捨)로 무량선근(無量善根)을 닦는 존재입니다.

보살마하살은 선근을 닦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근으로 일체중생을 두루 이롭게 하고 모두 청정케 하여 마침내는 지옥, 아귀, 축생,焰라왕 등의 한량없는 고통을 영원히 낮게 하여지이다.’

보살마하살이 선근을 심을 때 자신의 선근으로 또 이렇게 회향합니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의 보토가 되리니 이는 모든 번뇌에서 해탈케 하기 위함이며, 일체 중생의 나아갈 데가 되리니 이는 일체 지(一切智)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일체 중생의 안락처가 되리니 이는 구경(究竟) 안온처를 얻게 하기 위해서며, 일체 중생의 광명(光明)이 되리니 지혜의 빛을 얻어 어리석은 어둠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며,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되리니 구경 청정처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며, 일체 중생의 길잡이가 되리니 그들을 진실한 법에 들게 하기 위해서며, 일체 중생의 큰 스승이 되리니 결핍 없이 큰 지혜를 주기 위해서이다.’

보살마하살은 모든 선근으로 이와 같이 회향하여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게 이익을 주며 마침내 모든 일체지를 얻게 합니다. 보살마하살은 낯선 사람을 수호하고 회향하되 친구와 다름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은 모든 법이 평등한 바탕에 들어갔기 때문에 축생에게조차도 잠시라도 친구가 아니란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설사 어떤 중생이 보살에게 해치려는 생각을 일으킬지라도 보살은 자비로운 눈으로 보고 성내지 않으며, 중생들의 선지식(善知識)이 되어 정법을 설하여 닦아 익히게 합니다.

마치 큰 바다는 그 어떤 독물로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보살도 그와 같아서 이리석고 지혜가 없어 은덕을 모르고 심술궂고 교만하여 잘난 체 하고 마음이 감감하여 선한 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나쁜 중생들이

여러 가지로 핍박할지라도 보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보살마하살에게는 큰 복덕이 있고 마음이 깊고 넓으며 바른 생각으로 관찰하고 물러나지 않으며, 공덕과 지혜에 끝까지 이르며 높고 뛰어난 법을 구하며, 법의 광명이 널리 비치어 모든 이치를 보며 모든 법문에 지혜가 자재하여 항상 일체 중생과 선한 법을 닦으며 실수로라도 중생을 버리려는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중생들의 성질이 추악하고 소견이 잘못 들고 혼탁해서 교화하기 어렵다고 버리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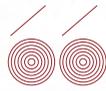
“보살은 큰 서원의 갑옷으로 스스로를 장엄하여 중생을 구호하고 잠시도 물러나지 않는다. 중생들이 은혜 갚을 줄 모른다고 하여 보살행을 그만두거나 보살도를 버리지 않으며 어리석은 무리들과 한곳에 범하여 참을 수 없다 하여 그들에게 싫증을 내는 일도 없다. 해가 한 가지 일만을 위해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듯 보살마하살도 한 중생만을 위해 선근을 닦는 것이 아니다.

한 부처님 세계만을 맑게 하려거나, 한 부처님만을 믿으려 하거나, 한 법만을 알기 위해 큰 지혜와 원력을 일으켜 위없는 보리에 회향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불국토를 두루 맑게 하려고 모든 부처님을 널리 믿으려고 모든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하려고, 모든 부처님 법을 두루 알려고, 큰 서원을 세우고 선근을 닦아 위없는 보리에 회향하는 것이다.”

<잡보장경>

# 태극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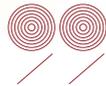
본원스님 / 토굴 정진중



“구한말 박영효 수신사가 일본으로 가면서 만든 것이 태극기이다. 그런데 특정 종교의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인 것에 대해 몹시 못마땅해 하며 굵지 않은 시각으로 확대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역(易)을 태동시킨 근본 원리에 있어 태극(태극기)과 유학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해 태극 사상은 유학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이들이 스스로 탐구 끝에 사상적 밑거름으로 다지며 창안된 고유한 전유물로 생각하는 ‘일용인륜’은, 『대학』에 씌어진 “격물치지…… 치국평천하” 등 주요 개념으로 다루고 인식하는 부분들을 두고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상 불교와 종교선사의 선사상을 옮기다시피 뼈대에 살만 덧붙인 것으로, 사실상 표절에 지나지 않은 주자학, 성리학임을 알아채는 사람은 의외로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다시 말해, 사변적이고 관념에 몰두한 탁상공론에 치우친 논리와 논쟁의 형식을 취하

는 전개방식의 학문이라는 것이다. 즉 본질을 다루는 핵심사상으로 들어가면, 유학 또한 예외 없이 불교의 부분 집합으로 흡수되는 일부분일 뿐이다.

『주자전서』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주희의 사상적 중심을 차지하는 학설은 인간 마음속에 끝없이 움직이는 ‘정(靜)과 ‘동(動)의 두 가지 심리적 양상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하느냐는 것을 과제로 삼은 ‘이(理)의 철학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미발(未發=고요)과 이

발(已發=움직임)의 혼재된 양상으로 파악했다. 미발의 마음은 정좌(靜坐)에 의한 통일이 고 이발의 마음은 실천에 의한 현실의 통찰이다. 이 둘을 다 살려 나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였던 ‘미발의 기상(氣象)과 ‘이발의 기상(氣象)이 합일점이 되는 화두를 오랜 은둔생활의 사색 끝에 얻었다고 한다.



## 태극사상은 유학과 관계없음

그것은 다름 아닌, 공구(孔丘,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지은 『중용(中庸)』에 나오는 ‘희노애락(喜怒哀樂)이 일어나기 전의 마음을 중(中)이라 한데서 착안한 것이다. 곧 복잡한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의 맑고 치우침이 없는 마음에 바탕을 두었고, 인간의 마음을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적연부동(寂然不動)한 상태의 미발(未發)과 동(動)하는 이발(已發)의 두 가지 양상을 지닌 것으로 이해했다. 여기에 하늘로부터 주어진 인간의 본성이 순수한 그대로 갖추어져 있으므로 미발의 마음은 ‘경(敬)에 의해서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중용(中庸)』에서 말하는 ‘성(誠)을 원리로 하여 마음이 이처럼 두 가지 양상을 가지고 실세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궁극적으로 통괄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고 주희는 이 근원적인 것으로서 ‘태극(太極)을 두었다.

훗날, 구한말 박영효가 1882년(고종 19) 일본 수신사 자격으로 가면서 아직까지 나라를 상징할 국기가 없어 고심 끝에 만든 것이 우

리나라 국기 ‘태극기’가 되기도 한 ‘태극’이라는 것은, 공자의 계사전(繫辭傳)에 있는 말이고 역리(易理)의 근원으로 삼았다. 태극은 북송의 주돈이(1017-1073)가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지어서, 만물을 만들어 내는 근원이라고 하며 형이상학(形而上學)의 중심에 둔 개념이기도 하다. 태극의 본체(本體)는 무기질(無氣質)로서 태극 이전의 시공(時空)인 태허(太虛)는 존재의 무(無)가 아닌 존재를 초월한 초존재로서 함축된 생명(實相)이며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무극(無極)의 개념이기도 한 태허(太虛)에서 절대 근원의 차원이 나오니 이것이 곧 ‘태극(太極)’이다.

‘태극’의 형상을 최초로 도해(圖解)한 사람은 주희보다 앞선 북송의 왕안석과 동시대 살았던 주돈이이다. 이들은 도가사상(道家思想)의 영향을 받고 새로운 유학 이론을 제시하며 우주의 근원인 태극(太極：無極), 즉 태



허(太虛)로부터 만물이 생성하는 과정을 그림(태극도)으로 그리고 오행(五行 : 木, 火, 土, 金, 水) 원소(元素)로서 만물이 구성되었다고 논하며 우주생성의 원리와 인간의 도덕 원리는 본래 하나라는 이론을 주창하였다. 여기에 유학자 정호·정이 형제와 장재(張載), 소강절, 주희에 이르면서 태극과 팔괘(八卦)는 우주의 본체 에너지 기(氣)로 파악하는 가운데 인간의 본질과 사물의 이치를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캐는 성리학(性理學)으로 불리게 되었다. 더불어 이기론(二氣論) 차원의 이기적 이원론(二氣的 二元論)인 이른바, “기(氣)가 이(理)를 앞선다”고 하는 ‘주리적 일원론(主氣의 一元論)’과 “이(理)가 기(氣)를 앞선다”는 ‘주리적 일원론(主理의 一元論)’으로 발전되었다.

● ●  
4괘는 우주의 중심에너지 상징

아득한 상고시대, 태호, 복희씨와 주(周)나라 문왕에 의한 하도(河圖)팔괘, 낙서(洛書)팔괘를 효시로 한 ‘역(易)’은 유가의 사서(논어, 맹자, 대학, 중용)에 이은 주요 경전 <주역(周易)>으로 자리하며, 이런 이유로 ‘태극(太極)’을 태동시킨 ‘역(易)’을 두고 유학의 고유물인 양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특정 종교의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인 것에 대해 몹시 못마땅해 하기를 “태극과 태극을 둘러싼 괘는 유가의 경전 <주역>에서 나왔으며 <주역>은 길흉화복을 점(占)치는 복술서(卜筮書)인만큼 왜 하필이면 일국의 국기가 합리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 옛 고전(古典)의 이론에 따라 만들어져야만 했는가 하는 의구심은 “태극의 문양이 적색, 청색으로 파도치듯 선을 따라 아래 위로 나뉜 형상이 마치 남북이 갈라진 모양과 이념적 성향을 나타내는 색채마저 닮았다”며 태극기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으로 확대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역(易)을 태동시킨 근본 원리에 있어 태극(태극기)과 유학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해 유학에서 태극 사상이 나온 것은 아니다.

다만 노나라 공자가 문왕이 역은 <주역>에 주석을 달고 뜻을 풀이한 십익(十翼)을 두고 송대의 학자들에 의해 태극을 도해하며 음양 사상에 입각하여 팔괘를 체계적으로 도식화(圖式化)하였고 이어 주희가 이를 받아들여 연구한 것이 주자학(朱子學), 곧 신유학의 뼈대를 이루는 기본 이론으로 정립시켰을 뿐이지, 음양사상과 태극은 특정 학문에서 발상했거나 학설은 아니다.

태극기의 네 귀를 이루는 4괘가 전통적인

유학사상과는 다른 별개의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4괘가 지닌 뜻을 요약해보면, 하늘, 땅, 물, 불 즉 우주의 중심 에너지를 상징화한 것으로 태극기를 둘러싼 건(建), 곤(坤)은 하늘과 땅으로, 만물을 실어다 주고 땅은 그것을 키워주니 음양(陰陽)을 이루는 ‘건(乾)’은 ‘양(陽)’이 되면서 하늘이 되고 ‘곤(坤)’은 ‘음(陰)’으로서 땅이 되어 그 가운데 삼라만상을 펼쳐 놓은 것이 천지간의 만물이다.

그리고 감(坎), 리(離)는 사람이 하늘을 머리에 이고 땅을 딛고 살면서 1차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원(源)을 뜻하는 붉은 색은 양(陽)을 상징하는 태양(日)으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태양의 따뜻한 빛과 열을 필요로 하는 반면, 푸른 색 바탕은 음(陰)을 상징한 것으로 음적(陰的)인 에너지가 되는 기(氣)를 발산하는 것 중 자연에서 달(月)이 그 대표적이다.

● ●  
태양은 불을, 달은 물을 지배

그러므로 태양이 불을 지배한다면 달은 물을 지배하는 고로 달의 움직임에 따라 해수면의 온도, 조수(潮水)간만의 차(差), 조류의 흐름이 변하는 것을, 바닷가 사람들이 예부터 알고 있는 조금(潮今)이다. 그름이다, 보름이다, 물때를 본다 고 하면서, 삶의 터전을 자연

의 이치에 따라 생활을 익혔으며, 우리가 한 해를 두고 흘러가는 날짜를 보는 일상 속의 달력(月曆)도 일정하게 움직이는 달의 운동을 관찰한 태음력(太陰曆)에서 비롯되었기에 달력은 곧 음적(陰的)인 달의 움직임을 살핀 관측에서 나온 역법(曆法)이다.

역동적으로 힘을 느끼게 하는 태극의 중심을 가르며 그어진 곡선의 끝이 하나로 맞닿을 듯 아래 위 청·적색의 빛으로 나뉘는 만물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 끝은 새로운 태동으로 이어짐을 뜻하는 것으로, 곡선의 모양은 모태(母胎)에 든 태아가 머리를 밑으로 두고 있는 듯한, 이것이 가리키는 바, 전체적으로 윤회사상(輪廻思想)의 진리를 담고 있는 태극도(太極圖)이다.

만년설로 덮인 히말라야 깊은 산기슭에 위치한 티벳불교는, 태고의 신비와 때 묻지 않은 대자연의 순수만큼이나 범속한 인간의 사유로는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베일에 싸인 가운데 생멸(生滅)하는 삼라만상의 실상을 깨달음의 손끝으로 그려낸 것이 이른바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이다.

1) 팔괘(八卦)는 역(易)의 이치를 설명하는 여덟 가지로 나눈 괘로서, 곤 감(坎), 곤(坤), 진(震), 손(巽), 건(乾), 태(兌), 건(艮), 이(離)를 말한다.

2) 매달 음력 초여드레와 스무사흘(조수가 가장 낮음)을 조금(潮今)이라 함.



## 조성 재료에 따른 한국의 탑

▲ 불국사 다보탑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우리나라 탑은 중국 탑의 영향을 받아 크게 발전하였으며, 그 조성 재료에 따라 목탑(木塔)·전탑(塼塔)·석탑(石塔)으로 나누어진다.

### 목탑

삼국시대에 조성되었던 초기 불탑은 모두 목탑으로 사찰의 중심부에 건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의 평양 청암리사지 목탑지(淸岩里寺址木塔址), 백제의 부여 군수리사

지 목탑지(軍守里寺址木塔址), 신라의 경주 황룡사 9층 목탑지(皇龍寺九層木塔址) 등은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탑은 신라 선덕여왕 12년(643년)에 건립된 황룡사 구층탑이다. 삼국유사에는 그 높이가 235척(약 78.75m)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고려 고종 25년(1238년) 몽고군에 의해 소실되어 현재는 그 자리만 남아있다. 경주 남산 탑곡(塔谷)의 바위에 새겨진 구층탑을 통해 당시 황룡사 구층탑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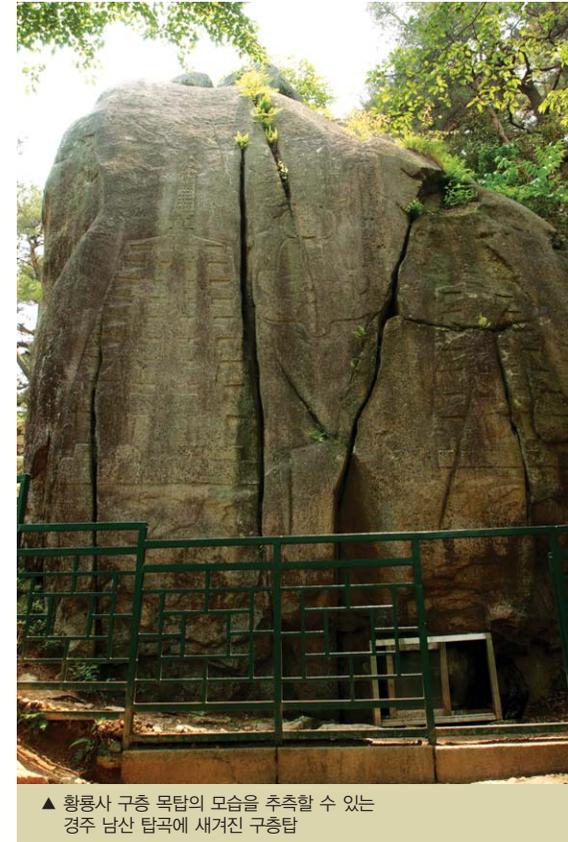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목탑은 충청북도 진천군 보련산에 있는 보탑사 3층 목탑이다. 황룡사 9층 목탑을 모델로 하여 1996년 8월에 완공된 3층 목탑의 높이는 42.71m이고 상륜부 9.99m를 더하면 모두 52.7m에 이르는데 이는 14층 아파트에 해당하는 높이이다. 목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모두 29개이며, 강원도산 소나무를 사용하였고 전통 방식에 따라 단 한 개의 쇠못도 사용하지 않고 지었다고 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워낙 많은 석탑이 건립되다보니 목탑은 건립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목탑이 없다 뿐이지 석탑과 더불어 많은 목탑이 건립되었다. 그 대표적인 목탑으로는 사천왕사를 위시하여 망덕사지(望德寺址), 보문사지(普門寺址) 등에 쌍탑의 목탑터가, 기림사(祇林寺), 황룡사 근방의 경주 구

황동 등지에 한 기의 목탑터가 남아있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 전탑

우리나라에서는 중국과 달리 전탑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전탑은 안동 신세동 7층탑, 안동 조탑동 5층탑, 안동 동부동 5층탑, 칠곡 송림사 5층탑, 여주 신록사 다층전탑(神勳寺多層塼塔), 청도 불령사 전탑(佛靈寺塼塔) 등 6기에 불과할 정도로



▲ 황룡사 구층 목탑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 경주 남산 탑곡에 새겨진 구층탑



1



2

1 신라 석탑의 전형인 석가탑  
2 백제 석탑의 전형인 정림사지 5층석탑

대단히 희귀하다.

전탑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로는 목탑보다 건축하기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석탑에 비해 그 수명이 짧았던 까닭으로 추정된다.

### 석탑

2013년 7월 현재,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로 지정한 석탑은 모두 520기로 한국 불탑(佛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석탑이 발전하게 된 까닭은 질 좋은 화강암이 풍부한 자연적 조건과 일찍부터 돌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나 중국을 ‘전탑의 나라’, 일본을 ‘목탑의 나라’, 한국은 ‘석탑의 나라’ 라고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목탑과 더불어 가장 흔한 석재 중의 하나인 화강암으로 석탑을 건립하였다.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익산 미륵사지(彌勒寺址) 석탑’과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앞서 유행했던 목탑을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이후 우리나라 석탑의 기본형이 되었다.

신라에서는 중국의 전탑의 영향을 받아 안산암을 벽돌처럼 잘라서 쌓은 모전석탑인 경주 분황사 석탑(芬皇寺 石塔)을 건립하였다.

백제와 신라의 초기 석탑의 양식은 각기 달랐지만 삼국통일 이후 두 계통의 석탑양식은 ‘감은사지 삼층석탑(국보 제112호)’에서 하나로 통합되었고 이후 ‘고선사지 삼층석탑(국보

제38호)’을 거쳐 ‘불국사 석가탑(국보 제21호)’에 이르러 통일신라 석탑의 전형양식을 자리매김하였고, 이것이 곧 한국 석탑의 시원(始原)으로서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 쌍탑의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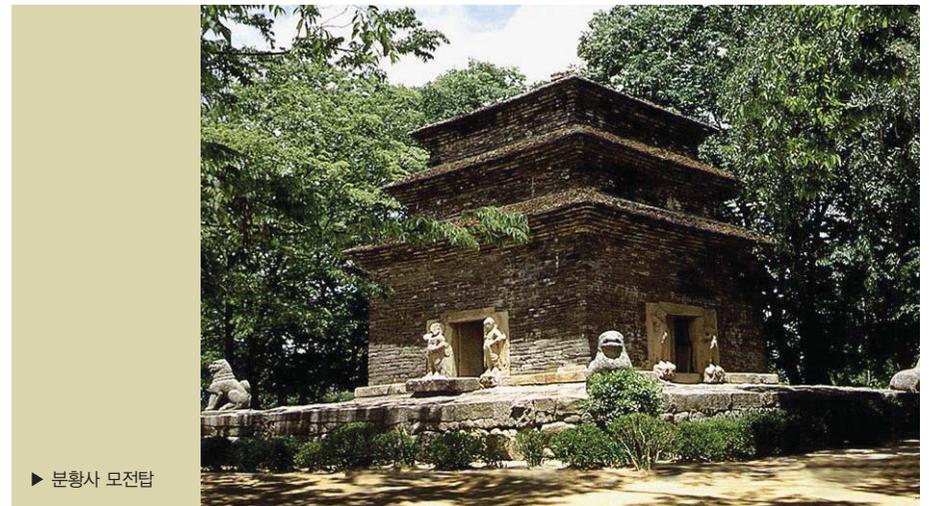
인도에서는 스투파가 경배의 대상으로 사찰의 중심에 위치하였고, 중국에서는 불상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금당 앞에 탑을 세우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초기에는 금당 앞에 1기의 탑을 세우는 것이 1금당 1탑의 가람배치가 일반적이었다. 이런 경향에 따라 신라의 황룡사는 장육존불을 모신 금당 앞에 구층목탑(九層木塔)을 건축하였고, 백제의 익산 미륵사는 3개의 금당을 건축하고

각각의 금당 앞에 3개의 탑을 세웠음이 유구(遺構)로 확인되고 있다.

쌍탑은 인도나 중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탑의 건축양식이다. 서기 679년 사천왕사에 목탑이 쌍탑으로 건립된 것이 최초이며, 석탑은 신문왕 2년 682년에 세워진 감은사지 동·서탑이 최초의 쌍탑 가람이다. 이후 불국사 석가탑과 다보탑이 건립된 뒤로는 일반화되어 쌍탑은 통일신라 시대 사찰 건축을 대표하는 가람배치로 발전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쌍탑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의 경우 680년 이후에 건축된 나라의 야쿠시지의 탑이 쌍탑으로 건립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쌍탑 가람은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통



▶ 분황사 모전탑



▲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으로 조성된 쌍탑형식인 감은사지 동서탑



▲ 안동 신세동 칠층전탑

일신라시대 석탑 건축의 특징이 되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불제자들은 다만 부처님의 정신을 사모하고 따랐던 까닭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오랫동안 불상을 만들지 않았으며, 그 대신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과 금강보좌·보리수·불족적(佛足跡) 등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500여 년이 지나자 근본불교의 정신이 약화되어 불상을 조성하여도 신성모독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한 불교의 교세가 커지면서 상징물보다는 보다 가시적인 대상을 신앙의 실체로 삼으려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불상이 만들어 졌다.

그럼에도 인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탑을 중심으로 가람을 배치하였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탑과 불상이 함께 전해졌는데 관습적으로 탑을 중요시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불상을 주된 경배 대상으로 삼았고, 탑은 오랜 관습에 따라 사

찰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로 이해되면서 불상에 비해 그 비중이 약해져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당의 어간 앞에 자리하여 부처님의 눈앞을 가리는 탑을 쌍탑으로 만들어 금당 앞 좌우에 배치함으로써 탑을 중시하는 전통적 관습을 지키면서도 불상을 존중하는 새로운 경배 문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것은 불제자들의 신앙생활이 사리를 봉안했던 이전의 탑 중심에서 불상을 중심으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대사건이

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사찰의 구심점이었던 금당 앞에 탑이 있었던 자리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석등을 세움으로서 인도나 중국, 그리고 일본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새로운 불교문화가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 아름다운 석조 문화의 진수 지리산 구례 연곡사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지리산에 자리한 연곡사는 신라 진흥왕 때인 543년에 연기조사(緣起祖師)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기조사가 현재의 연곡사 자리에 있었던 연못 한 가운데에서 물이 소용돌이치더니 제비 한마리가 날아간 것을 보고 이 연못을 메워 법당을 짓고 절 이름을 연곡사(燕谷寺)라 했다고 한다.



▲ 북승탑(국보 제54호)

연곡사는 신라 말과 고려 초에는 사세가 상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 수차에 걸쳐 불길에 휩싸이는 등 유별나게 수난을 많이 겪은 사찰이기도 하다. 연곡사가 처음 불탄 것은 임진왜란이다. 그 뒤 소요대사 태능(1562~1649)이 1627년 다시 중창하였다. 소요대사는 서산대사의 제자로서 선(禪)을 중시한 고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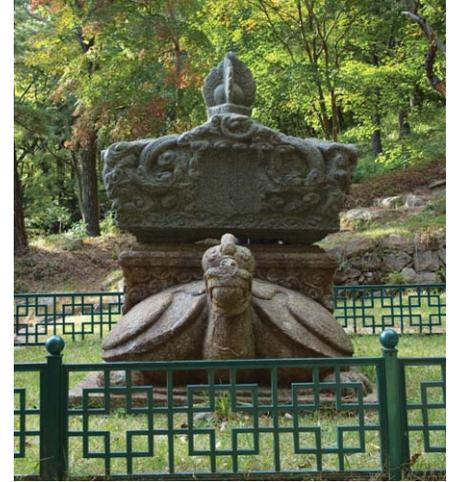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후에는 항일의 병의 근거지가 되면서 왜병들에 의해 또 한번 크게 불 타게 되고 한국동란 때에는 피아골 전투로 승탑만 덩그렁 남은 폐사가 된다.

석조물을 제외한 건물은 하나도 없던 연곡사는 1965년에 대웅전이 세워지고 1983년에 대적광전 등이 건립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4년부터 주석한 종지(宗知)스님이 활발한 불사로 오늘의 연곡사를 만들었다.

연곡사는 아름다운 탑들이 많은 ‘승탑의 보고’이다. 연곡사에는 동승탑(국보 제53호), 북승탑(국보 제54호) 등 국보 2점과 보물 151호인 삼층석탑과 현각선사탑비(보물 제152호), 동승탑비(보물 제153호), 그리고 소요대사 승탑(보물 제154호) 등 보물 4점이 보존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동승탑과 삼층석탑 및 동승탑비, 북승탑과 현각선사탑비 등은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뛰어난 석조물로 평가받고 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곳이 탑이라면, 수행이 높았던 스님의 사리를 모셔두는 곳이 승탑이다.

동승탑은 ‘승탑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아



▲ 동승탑비(보물 제153호)

름답고 우아하다. 동승탑은 8각형이 기본이다. 도선국사의 승탑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기단이 좁 높아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안정된 비례감을 잃지 않으면서 훌륭한 조각수법을 보이고 있어 통일신라 후기를 대표할 만한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속하는 승탑 중 가장 형태가 우아하고 정교한 작품 중의 하나이다.

동승탑에서 북쪽으로 계단길을 따라 150m쯤 올라간 곳에 있는 북승탑은 국보 제54호로 동승탑과 함께 승탑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걸작이다.

네모난 바닷돌 위에 세워져 있는 북승탑은 동승탑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8각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팔각원당형 승탑이다. 이런 모양뿐만 아니라 크기와 형태도 거의 동승탑과 같아 동승탑을 본떠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승탑에는 기둥과 몸체가 떨어져 있으나 북승탑은 기둥과 몸체가 붙어 있어 조각기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 승탑 역시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어떤 스님을 기리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어 그냥 ‘복승탑’라고 부르고 있다. 동승탑이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반면에 복승탑은 그 후인 고려 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보물 151호인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 후기의 석탑이다. 이 탑은 신라시대의 전형적 삼층석탑 형식을 띠고 있지만 기단이 2층이 아닌 3층 기단으로 되어 있어 매우 독특하다.

현각선사탑비는 고려 전기의 승려인 현각 선사를 기리기 위해 세운 탑비이다. 비의 몸돌은 임진왜란 때 없어지고, 거북모양받침돌(귀부)과 머릿돌(이수)만 남아 있다. 머릿돌에 ‘현각왕사비명(玄覺王師碑銘)’이라는 명

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연곡사 동승탑비(보물 제153호)는 동승탑 앞쪽에 서 있는 비로서, 몸돌은 없어진 채 거북모양받침돌과 머릿돌만이 남아 있다.

소요대사탑비(보물 제154호)는 연곡사의 3개의 승탑 중 하나로 서쪽에 있어 ‘서승탑’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 조성된 승탑이다. 누구의 탑인줄 모르는 동승탑이나 복승탑과 달리, 서승탑은 승탑의 탑신에 새겨진 명문을 보면 소요대사의 사리를 모셔둔 승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건립시기는 조선 효종 원년(1650)이다.

연곡사 경내에는 구한말 의병장 고헌순의 순절비가 있다. 고헌순은 담양 출신으로 의병을 조직하여 남원, 광주, 구례, 순천 등지에서 일본군과 싸웠으며 연곡사에 들어와 유격전을 펴다가 1907년 8월 일본 군경의 연합부대에게 야간기습을 당하여 패전하고 의병들과 함께 순절하였다. 이때 연곡사도 일본군의 방화로 불에 타지 않는 석조물 외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타버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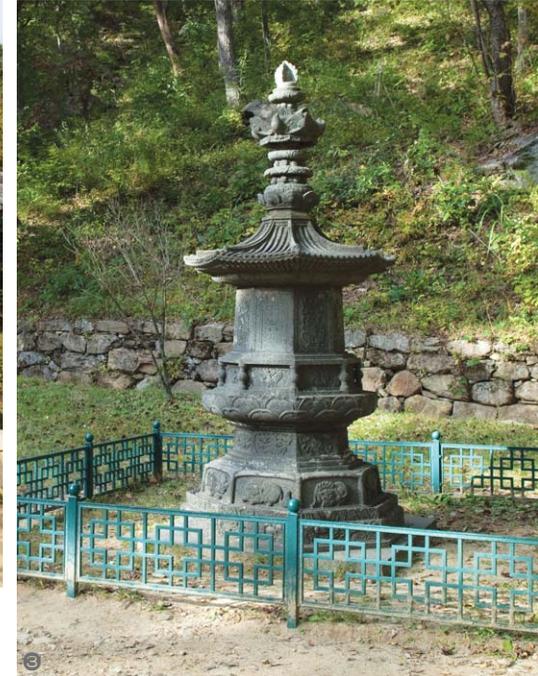
연곡사에는 밤나무가 많다. 그 이유는 조선 영조 21년(1745)에 연곡사와 이곳 일대가 왕가의 신주목(神主木, 位牌木)을 내기 위한



울목봉산(栗木封山)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봉산은 나라에서 나무 베는 것을 금지한 산을 말한다.

이로 인해 연곡사 주변에는 왕실의 제사에 쓰이는 위패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밤나무가 심어지고 재배되었지만 1895년 무렵 왕가의 밤나무 남용으로 부담이 증가되자 절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폐사가 되고 만다.

한 때 석조물 이외에는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잿더미가 되기도 한 연곡사, 하지만 천년을 넘게 이어온 아름다운 승탑은 당시의 깨침의 향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다.



- ① 삼층석탑(보물 제151호)
- ② 연곡사 대적광전
- ③ 동승탑(국보 제53호)

#### 연곡사 가는 길

**승용차** 88고속도로 남원분기점에서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방향으로 갈아탄다. 구례 나들목에서 내려 구례 하동간 19번 국도를 타고 하동방향으로 가다 기존에서 865지방도를 타고 가면 연곡사 매표소가 나온다.

## 효봉선사 오도송(悟道頌)

海底燕巢鹿抱卵(해저연소록포란)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火中蛛室魚煎茶(화중주실어전다)  
불 속 거미집에 고기가 차를 달이네

此家消息誰能識(차가소식수능식)  
이 집 소식 누가 알꼬?

白雲西飛月東走(백운서비월동주)  
흰 구름 서로 날고 달은 동으로 달리네



효봉선사(曉峰禪師)는 1888년 5월 28일 평안남도 양덕군 쌍룡면 반석리 금성동(錦城洞)에서 아버지 수안(遂安) 이씨 병억(炳億)과 어머니 김씨 사이에서 5형제 중 3남으로 태어났다.

평양고보를 졸업한 뒤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스님은 스물 여섯에 졸업한 후 서른 여섯이 될 때까지 10년간(1913~1923) 서울과 함흥 등지의 지방법원에서, 평양의 고등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하였다.

1923년 스님의 나이 서른 여섯 살 때 최초로 내린 사형선고 앞에서 몇날 몇밤을 뜯눈으로 지새며 자기 자신의 존재를 회의하고 인간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고뇌하게 되었다.

‘이 세상은 내가 살 곳이 아니다. 내가 갈 길은 따로 있을 것이다.’라는 결심을 하고 집을 나와 유랑 생활을 하다가 1925년 금강산 유점사에 들러 석두(石頭)스님으로부터 사미계와 원명(元明)이라는 법명을 받고 출가하였다.

스님은 남보다 많이 늦은 서른 여섯에 출가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남들이 쉴 때도 쉬지 않고 잠잘 시간에도 잠자지 않으면서 분발, 깨달음을 위한 좌선(坐禪)에만 전념, 1930년 늦은 봄 스님의 나이 마흔 세 살 때 깨닫기 전에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토굴 밖으로 나오지 않으리라는 맹세를 하고 토굴에 들어간 지 1년 반만에 드디어 토굴의 벽이 무너지고 필사적인 정진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스님은 마흔 다섯 되던 1932년 4월 초파일에 유점사에서 동선(東宣) 화상을 계사로 구족계와 보살계를 받고, 설악산 봉정암, 오대산 상원사 등 청정한 선원에서 한 철씩 정진하다가 1937년 조계산 송광사에 이르러 선원(禪院)인 삼일암(三日庵)에서 조실로 10년을 머물면서 수많은 후학들을 지도하셨다.

8·15 광복 후 해인사에 출가 수행승의 종합수도원인 가야총림(伽倻叢林)을 개원하고 스님은 방장화상으로 추대되었다. 그 후 여러 해가 지나 종정(宗正)으로 추대되시어 팔공산 동화사에 주석, 후학들을 지도하시다가 밀양 표충사로 옮기시어 계시다가 1966년 10월 15일(음력으로 9월 초이틀) 세수 일흔 아홉에 입적하셨다.

# 법왕사 소식

## 송담스님 친견 및 화두 수지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10월 6일 제25회 백고좌법회 36일차 특별법회로 인천 용화사 송담 큰스님 친견 및 화두, 불명, 십선계 수지법회를 봉행합니다. 송담스님은 법왕사 회주 원공당 정무 큰스님의 스승인 전강선사의 제자로 현대 한국 선불교를 대표하는 선사이십니다. 스님의 세수가 높아 친견할 기회를 얻기가 어려울만큼 불자들에게서는 이번 기회에 큰스님을 친견하고 새로운 정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백고좌법회 49재 입재

법왕사에서는 오는 10월 21일 제25회 백고좌법회 49재를 입재합니다. 이날 입재한 49재는 백고좌법회 회향일인 12월 9일 회향합니다. 법회기간 동안 조상영가 천도재를 올림으로써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49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파워포럼 주관 제42회 경로잔치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10월 12일 1천명 초청 제42회 경로잔치 한마당을 봉행합니다. 법왕사에서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 법왕사 불자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대접하고 푸짐한 선물을 드리는 경로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잔치

는 파워포럼연합회에서 행사 일체를 주관, 진행하기로 되어 있어 예년과는 또 다른 특별한 잔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사를 위해 불자 여러분들의 자원 봉사, 찬조출연, 각종 행사물품 보기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0월 20일 대원사, 송광사 이동법회 봉행



백고좌법회 이동법회의 하나로 오는 10월 20일 전남 대원사, 송광사 순례법회를 봉행합니다. 송광사는 우리나라 삼보사찰 가운데 승보사찰로 오랜 역사와 웅장한 가람, 고려시대에 16분의 국사를 배출한 승가 교육기관의 최고로 불자들은 꼭 참배해야 하는 도량입니다.

## 불교대학 초급반 개강

불교대학 초급반이 10월 1일 개강하였습니다. 초급반은 주지 실상스님 직강으로 진행되는데 불교의 기초교리와 사찰예절 등 처음 불교에 입문하는 불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좋은 기회입니다. 불교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혜연스님의 사찰요리 2기 개강

법왕사에서는 사찰 요리 전문가 혜연스님을 초청, 사찰요리 제2기 강의를 10월 1일 개강합니다. 사찰음식은 현대인들의 건강과 힐링을 위한 최적의 요

# 법왕사 소식

리로 각광받고 있는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혜연스님의 정통 사찰요리는 가족의 건강에 큰 보탬을 줄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법왕불교대학 중급, 고급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불교에 입문하여 더욱 깊은 교리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을 위해 주야간으로 중급, 고급반을 개설합니다. 중급반은 스리랑카에서 10여년간 유학하면서 남방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최근 돌아온 영일스님께서 '빨리 불교원전' 강좌를 3개월 과정으로 하며, 고급반은 설법제일로 이름난 활안 큰스님께서 5개월 과정으로 고급 교리에 대해 강의합니다.

## 2014학년도 수능 고득점 기원 100일 관음기도 봉행 중

법왕사에서는 2014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고득점을 기원하는 100일 관음기도를 지난 7월 31일 입재하여 수능일인 11월 7일에 회향하는 일정으로 봉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험생을 둔 불자들은 영험 있는 기도도량인 법왕사에서 100일 관음기도를 정성껏 올리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 운불련 불자들 백고좌법회 동참



운불련 소속 불자 2백여명이 지난 9월 23일 백고좌법회 23일차 법회에 동참, 법문을 들었습니다. 운

불련 회원들은 이 밖에도 매년 법회시 많이 참석하면서 보살계 수계법회 시에는 단체로 참여하여 법석을 채웠습니다.

## 불교대학 고급반 금강경 강독 성황



지난 7월 4일 개강한 법왕불교대학 고급반 '금강경 강독' 5개월 과정에 5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하여 한여름 무더위도 잊은 채 불법 탐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의 주제인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의경전으로 대승불교의 핵심 개념인 공(空)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낸 경전입니다. 또한 강의를 맡은 활안스님은 '설법제일'로 이름난 대강백으로 재미있고 깊이 있는 해설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 추석 합동차례 봉행

법왕사에서는 올해 추석인 9월 19일 평생위패를 모신 분 가운데 200여분이 추석합동차례를 신청, 봉행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차례를 올리기 힘들거나 여법한 절차로 차례를 올리고 싶은 불자들이 많이 동참하여 조상의 음덕을 기렸습니다.

## 중앙절 합동차례 접수 중

법왕사에서는 중앙절인 음력 9월 9일, 양력 10월 13일에 합동 차례를 올립니다. 중앙절은 한가위에 차례를 지내지 못한 분들이 차례를 올리는 날로 해당 되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새로 오신 법우님

김기현 김동주 김소라 김수희 권영희
김이연 김재현 장재순 안준열 백수영
안현진 안해진 이순금 전병학 정양희
전승은 전승민 이나영 전보현 전호연
장차욱 장성욱 권옥란 안희무 안형걸
신석근 조갑용 정경순 최대승화

법왕사의 새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복
덕이 넘치는 신행생활 하시기 기원합니다.

공양 올리신 분

- 초하루 과일공양
선용흠 배 1box
초하루 음식공양
홍세미(김밥 생수 직접) 신채원(떡 5만원)
대중공양
정미화 과일 직접 안준영 12만원
신장재일 떡 공양
배수현(부창떡집)
지장재일 떡 공양
김정숙 김정석 이세정
지장재일 공양미
김주현
추석 과일공양
전옥남(세광하이테크) 최옥남
꽃 공양
김익환 5만원 묘장엄
떡 공양
이대해궁 3만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축원 올리신 분

- 만불 축원
김계선 10만원
계사년 사업기도 축원
이관진(한진 기사식당)

새로 지장회 가입하신 분

김계선

불사 동참하신 분

- 신중병화 모신 분
박정아 권민서 권명서
새로이 원불 모신 분
성기연(관세음보살) 박소현(관세음보살)
제2 해오름 요양원·병원 한가족 한평불사
전지혜 김재경 김정국 최민우 이재왕
박소영 권오삼 강선국 박해숙 김수영
손대천 유창성 신임선 자유스님 이대해궁
사공순옥 성문건설 BBS 불교방송
대법당 삼존불 불사 안납 불사
심규암 김호연 전재술 신명균 신현수
강학철 백상현 최병민 박경영 김영웅
성진경 이종량 이세정 임덕규 박진태
홍승규 최성주 오창석 정효교 정정교
문국현 황병욱 조흔제 권상태 김명필
황명덕 여죽동 김태홍 이길우 김태한
문경주 서창덕 양영갑 정연직 정광춘
김옥숙 이탁형 김영수 이상태 박병기
조창완 안동수 추명석 신격기 박길수
남정오 안중현 이병규 이금선 김종호
최석돌 구분호 지병윤 양재인 이석현
류근화 이동학 이성시 이수희 우종돌
정하권 신조순 김명복 김용엽 안기환
이민형 정평수 신용홍 조준형 박말순
김홍석 김억한 박의창 신주식 강정선
류윤만 서보영 박병윤 남인식 이진욱
박호윤 전용훈 류홍열 이성락 김경희
배해동 진건부 최병일 전영일 김차연
류시환 조상노 우용후 박종진 박종철
이원석 신용학 황현식 임인한
임창호 박기화 황금순 류병영 김상한
전우수 오 일 여상수 송용순 권영철
이유정행 장선정혜 백대행심 이보단화
이바라밀 박진동 이자비심 <이상 20만원>
이희동 25만원 서정훈 25만원 김명주 30만원
김태훈 30만원 이광진 30만원 박현수 30만원

- 조정동필 90만원 이일진행 100만원
윤환희명 100만원
불사 도움 주신 분
김정국 100만원 김재경 100만원
이재왕 100만원 전지혜 100만원
최민우 100만원
석등불사
김임태 15만원

산신기도 도움 주신 분

김윤규 과일 야채

인등기도 올리신 분

김홍일 30만원 이상욱 8만원 최광섭 3만원

산신인등기도 올리신 분

최운순 5만원

물품 후원 및 보시하신 분

- 승복
김다솔(바지) 법계화·대원화(2벌)
물품
합창단 종무소 복사기 토너 교체
법사비
신장회
요양원 후원물품
박수자 7만원 추정자 복시계 1개
정경숙 버섯 1박스 노진덕 1인용 소파
권혁만 오렌지주스 2박스 정잠분 배 1박스
양혜영 생활필수품 30만원
파워포럼 경로잔치 한마당
최태희 3만원 운불련 차량 및 기사지원

제25회 백고좌 공양 올리신 분

- 입재 공양미(1포 20kg)
남기석 이승재

- 공양미(1포 20kg)
심보현 이차남 정혜월 차명희 언장학송
장우성 권혜지 언김태호 박시병 이도윤
이정상 이옥진 전옥남 정영미 사공순옥
권마하연 구분열·구분갑 권혁일·권도형
노학수·노이슬·노용철
언염부 남공·삼촌 남공·고모 남氏·고종사촌

- 과일 공양
김우영 박동근 백보현행 정혜월

- 입재 떡공양
김익환 10만원 신장회 1말5되

- 떡 공양
곽재혁·정서연 김성훈 김현향 박준표

감사드립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께서 蘭화분을 보내주
셨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강지원 권도형 권오삼 김상수 김임태
김주현 남상훈 류희승 배수현 백익혁
이정애 정시영 이세정 언송주상 언송병훈

결혼을 축하합니다

권오승 법우님의 장녀 다영 양의 결혼식이 9월 28
일(토) 오후 1시 뉴욕뉴욕웨딩 2층 채플홀에서 있
습니다.

사보 도움 주신 분

백대행심 50부 오견덕화 50부 이재학 50부
최태희 50부 박경자 100부 합창단 100부
윤견불심 100부 요양원식구들 200부
권숙화 200부 최옥남 500부 이세정 100부
정심행 100부 일심회 일동 200부
신장회 일동 200부 강숙희 모친 50부
사찰요리반 100부 구실상화 200부
조진불심 100부 송정숙 200부 관음회 100부
백법성행 100부 지장회원 일동 100부

김민주 500부    심규암 50부  
 효상스님 300부    박옥 2만원    최인구 2만원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돼지 저금통 회향하신 분**

이지송    홍공덕심

**왕생극락하옵소서**

- ◆ 김광현 법우님의 亡엄부후인 김해 김공 영선 영가님과 자모유인 설성 김씨 태선 영가님의 기제사가 9월 9일에 있었습니다.
- ◆ 김진현 법우님의 亡엄부후인 일선 김공 태호 영가님의 막제가 9월 10일에 있었습니다.
- ◆ 정인순 정대원 법우님의 亡엄부후인 동래 정공 상화 영가님과 자모유인 경주 이씨 속자 영가님의 기제사가 9월 20일에 있었습니다.
- ◆ 송순희 법우님의 亡남편후인 전공 창우 영가님의 기제사가 9월 24일에 있었습니다.
- ◆ 김민주 법우님의 亡시엄부후인 파평 윤공 상기 영가님의 초제가 9월 28일에 있었습니다.
- ◆ 이정윤 법우님의 亡엄부후인 경주 이공 대우 영가님의 기제사가 9월 29일에 있었습니다.
- ◆ 백영배 법우님의 亡엄부후인 수원 백공 상흠 영가님의 기제사가 10월 1일에 있었습니다.

◆ 송용훈 법우님의 亡삼촌후인 은진 송공 병훈 영가님의 환갑생신이 10월 2일에 있었습니다.

◆ 정무근스님의 2주기 행사가 10월 7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새롭게 평생위패 모신 분**

亡백모유인 안동 권씨 주남 靈駕  
 亡숙부후인 밀양 박공 연만 靈駕  
 亡숙부후인 밀양 박공 연원 靈駕  
 亡숙부후인 밀양 박공 연동 靈駕  
 亡조카후인 밀양 박공 현준 靈駕  
 亡엄부후인 동래 정공 상화 靈駕  
 亡자모유인 경주 이씨 속자 靈駕  
 亡엄부후인 일선 김공 태호 靈駕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지성심 · 법연화 두 보살님께서 8월 30일 종무소에 새로이 부임하셨습니다.

**법왕사 계좌번호**

-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8월)**

◎ 수입내역		
김주희 5천원	신인성 5천원	권혁봉 5천원
박정목 1만원	이호동 5천원	최경순 1만원
권봉자 3만원	성외련 2만원	고연숙 1만원
임상덕 1만원	김임태 5천원	정시영 2만원
권보령 2만원	홍세림 1만원	조규인 1만원
사공관 1만원	이상자 5천원	채옥연 5천원
배수현 2만원	신돈식 1만원	여태동 5천원
이종희 5천원	안경순 1만원	조용수 2만원
장인숙 5천원	강태출 5천원	박태숙 5천원
박창목 5천원	이현우 1만원	이은주 1만원
문정애 2만원	노귀자 5천원	이정옥 1만원
정무시 1만원	김장임 1만원	권숙자 1만원
현영희 1만원	강영도 2만원	이정훈 1만원
심규암 5천원	김정자 5천원	김기수 2만원
구정대 2만원	김순태 1만원	김민주 1만원
박귀분 1만원	권명원 1만원	정공용 1만원
홍유식 3천원	윤광숙 5천원	고선영 1만원
김예분 1만원	박명숙 1만원	최복례 1만원
오금옥 1만원	오난옥 5천원	박대희 5천원
이남희 1만원	안상준 2만원	강소남 5천원
여숙동 1만원	최분규 1만원	유명옥 1만원
김원형 3만원	김기덕 2만원	이임숙 2만원
강선옥 1만원	임익균 1만원	권봉자 3만원
한규매 5천원	김진성 1만원	심중순 5천원
김봉숙 5천원	정연이 5천원	이인순 5천원
신구자 5천원	이병희 1만원	김순란 3만원
윤순희 1만원	조영석 1만원	김정희 1만원
양나영 5천원	김미옥 2만원	김수라 1만원
안명희 1만원	정광춘 5만원	신혜경 5천원
현인숙 1만원	황미선 2만원	정무시 1만원
장우성 1만원	노수정 1만원	권계화 1만원
이은희 5천원	김정순 3만원	정근순 2만원
우포정사 1만원	박종성 1만원	박경훈 1만원
동양신성가스텍 박원태 1만5천원		
대우공예 박순영 5천원		
의령소바 객순복 2만원		
도서출판 풍경소리 박학순 1만원		
지로 4건 7만9천8십원		
<b>합계 1,374,080원</b>		

◎ 지출내역	
- 기저귀 구입	173,720원
- 생신케익	31,000원
- 차량주유대	200,000원
- 약품구입및 진료비	29,700원
- CMS사용료	66,000원
- 배식카 구입	60,000원
- 식재료 구입	189,600원
- 엘리베이터 관리비	300,000원
- 통신비	6,340원
- 전화이동설치비	70,000원

**8월 총 사용내역 1,312,640원**

**잔액 502,204원** (2013년 8월말 기준)

-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후원물품 보내신 분**

- 김덕순 어르신 보호자**  
: 바나나 6손, 요플레 50개, 두유 25개, 이오 50개, 황도캔 1상자, 요구르트 40개, 주스 1box, 떡 7봉지
- 임성녀 어르신 보호자** : 포도 2상자, 바나나 3손
- 채분이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2박스, 수박큰거 1통
- 진병호 어르신 보호자** : 비타500 2box, 주스 2병, 요구르트 15병
- 백복달 어르신 보호자** : 요구르트 15병
- 장석순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1box
- 박수연 어르신 보호자** : 통닭 2통
- 윤말줄 어르신 보호자** : 하드 10개
- 정잠분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2box
- 장말순 어르신 보호자** : 포도 1box, 바나나 1손
- 녹색봉사단** : 디타드 60개, 속귀저귀 50개, 걸기저귀 10개
- 장태순 어르신 보호자** : 아이스크림 3통
- 정금화 어르신 보호자** : 거봉포도 4kg
- 박말분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2box
- 주정석 어르신 보호자** : 빵 6줄

**제25회 백고좌(36일차) 이동법회 및 송담스님 친견 및 화두·불명 수지법회 봉행**



☘ 법 회 화두, 불명, 십선계 수계법회

☘ 일 시 2013년 10월 6일(일)

☘ 출 발 오전 7시 법왕사 주차장

☘ 장 소 인천 용화사

이광길 : 의료용품후원

권마하연 : 에어매트, 기저귀, 쌀 20kg

※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하신 물품과 후원금을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봉사활동 하신 분

9월 15일 : 녹색봉사단 30명

## 자원봉사자 모집

###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 신청방법

- T.053-766-5767 담당 사무국장 강선옥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사무실(수성구 파도로 51길 96)

##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 후원안내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2013년 1월 1일  
음식폐기물 종량제 전면실시

## 가정용 - 음식물 바이오 처리기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소멸방식



- 세계최초 배기호스 NO
- 침출수 NO
- 약취, 세균 NO
- 필터교체 NO

- 캐나다 밴쿠버 세계박람회 최우수 상품 선정
- 스포츠서울 선정 2011년 기술혁신부문 브랜드대상 수상
- 친환경 녹색기업, 환경부 녹색인증 대상업체
- 설치가 필요없고 사용이 편리하며, 24시간 내 대부분 분해 소멸됨
- 2개월에 한번 비료로 사용
- 월 전기료 3,000원 미만

**\* 수익금 법왕사 해오름 요양원 후원 \***

상담문의  
주미렌바이오 대구중구총판 장성용 010-6527-6977  
총판 / 대리점 / 영업사원 모집 / 주부환영

## 청정 지역 청송에서 100% 순 우리 콩으로 빚은 간장·된장 재래식 전통 비법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청정지역 청송에서 재배한 순 우리 콩으로 빚은 메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왕사 메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청정지역인 청송에서 재배하고 가공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발효한 최고의 친환경 식품입니다.

간장 2만원  
된장 3만원



구입문의 053-766-3747, 9088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 제42회 법왕사 가을 경로잔치

법왕사에서는 오는 10월 12일 1천명 초청 제42회 경로잔치 한마당을 봉행합니다. 특히 이번 잔치는 파워포럼연합회에서 행사 일체를 주관, 진행하기로 되어 있어 예년과는 또 다른 특별한 잔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사를 위해 불자 여러분의 자원봉사, 찬조출연, 각종 행사물품 보시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1부 기도 11시 ~ 12시 2부 점심공양 12시 ~ 1시 3부 공연 1시 ~ 3시

일 시 2557년 10월 12일(토)  
장 소 법왕사 지하층 공양간  
초청인원 1천명

### 물품 보시 받습니다

구분	수량
우유	5,000개
팩소주	5,000개
음료수	5,000개
사과	5,000개
요구르트	5,000개
사탕	5,000개
빵	5,000개
수건	5,000개
쇼핑가방	5,000개

※ 쌀, 떡, 일체 모든 대중공양 접수 받습니다. / 당일 자원봉사하실 분도 접수 받습니다. (현재 접수중) / 당일 공연에 무료 출연하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법왕불교대학 초급, 중급, 고급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초급 주야간반을 비롯하여 불교에 입문하여 더욱 깊은 교리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을 위해 주야간으로 중급, 고급반, 경전반을 개설합니다.

중급반은 스리랑카에서 10여년간 유학하면서 남방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최근 돌아온 영일스님께서 '빨리 불교원전' 강좌를 3개월 과정으로 하며, 고급반은 설법제일로 이름난 활안 큰스님께서 5개월 과정으로 금강경을 강의합니다.

-  **초급반** 실상스님(법왕사 주지)  
(주야간) 기초교리(10월초 개강)
-  **중급반** 영일스님(스리랑카 유학)  
(3개월) 빨리불교 원전(8월말 개강)
-  **고급반** 활안스님(설법제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5개월) 금강경(7월 4일 개강)

## - 법왕사 문화 강좌 개설 -

-  **생활역학과 풍수지리반**  
- 강사: **홍순영** 선생님  
- 약력: 한국역학인총회 고문  
대한풍수학회 회장  
동양문화연구원 원장
-  **서각**  
- 강사: **신임선** 선생님  
- 약력: 대구광역시 서예대전 초대작가  
죽농서단 이사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 시간: 매주 화, 목  
- 회비: 3개월 20만원(재료비 별도)
-  **사찰음식 2기 개강**  
- 강사: **혜연스님**  
- 일시: 2013년 10월 1일(화) 오후 2시  
- 약력: 향적원 사찰음식 전문점 개점  
대구 미래외식 경영원 사찰음식 강의  
현대백화점 대구점 '산사의 아침' 개점  
사찰음식 제조협회 이사
-  **다도**  
- 강사: **김정규** 선생님  
- 약력: 청화다례원 원장  
-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합창단**  
- 강사: **정무시** 선생님  
- 약력: 영남대학교음악대학 동대학원 졸업  
대구시립합창단원  
-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회비: 없음
-  **사물놀이**  
- 시간: 매주 월, 목요일 오후 2시
-  **선묵화**  
- 강사: **법주스님**  
- 대상: 스님, 일반인  
-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하실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상동교→수성못 오거리→용두교→법왕사**로 오는 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산터널 개통으로 범물동에서 법왕사까지 7분, 상인동 터널 입구에서 법왕사까지는 11분으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신천좌안 고가도로 완공시까지 네비게이션으로 '파동초등학교'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 신행단체 모임안내

<b>신 장 회</b>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b>인 등 회</b>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b>산신기도회</b> 매월(음) 16일 오후 4시	<b>지 장 회</b>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b>관 음 회</b>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b>합 창 단</b>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b>선우회(참선반)</b> 매일 오후 7시~9시 주말 자유정진	